

인물탐방 사진작가 최민식

가난이 사진을 찍게 했다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최민식옹의 사진은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라고 말한다.

그의 집은 담쟁이넝쿨이 담을 감싸고 있는 지은지 족히 십수 년은 되었을 것 같은 단층 살래바다. 포도나무가 그닥 넓지않은 마당에 그늘을 드리운 200㎡ 남짓한 이 집의 주인은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작가 최민식(80·대전1동)옹이다.

작가의 서재엔 진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창문을 제외한 4면이 온통 서가에 꽂힌 책들로 도배되어 있다. 서가는 책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기도 하고 사들인 게 아니라 손수 짠 것인지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다. 책상, 의자, 책상위의 책꽂이 등 서재의 집기들이 새 것인 게 없지만 깔끔하다. 천연 장의 LP판도 한편에서 나이를 다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재의 풍경이 공상스러운 건 아니다. 오래된 것들이 주는 편안함, 깨끗하고 청빈한 선비의 사랑방을 찾듯이 느낌이다.

그는 1928년 안동 태생. 7세 때 선친(최창웅)의 고향인 황해도 연안으로 옮겨 살게된다. 선친은 소실적 씨름을 하다 다쳐 불구의 몸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서 도장업에 종사했지만 시골구석에서 벌이는 변변찮았다. 자연 농사일은 어머니와 장남인 그의 몫이었고 그마저 소작이서 살림은 늘 빠듯했다. 그 와중에 어머니마저 혈압으로 돌아가시고 가난한 살림에 중학교 진학도 포기해야만 했다.

스무 살의 청년 최민식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아버지와 동생들을 두고 무작정 서울로 갔지만 이후 다시는 연안 땅을 밟지 못했다. 서울생활은

가난한 민초의 삶 50여년간 렌즈에 담아 '카메라의 램브란트' 세계적 작가로 인정

녹록치 않았다. 식당과 인쇄소, 빵 공장, 지게꾼, 심지어 냄바주이까지 세상의 밑바닥을 전전해야만 했다.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밤에는 사립 미술학원에 다니며 화가의 꿈을 키워가던 중 6·25가 발발, 병참부대 보급병으로 입대해 그는 순천에서 평생의 반려자 박정남(73)을 만나 결혼한다.

제대 후 부산에 터를 잡은 그는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감행, '동경중앙미술학원' 야간부에서 디자인공부를 했다. 동경에서의 생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식당종업원, 패용팔이 등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았다. 시간이 나면 들르던 헌책방에서 접한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사진집 'The Family of Man' (인간가족)과의 만남이 일생일대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 작가는 "모든 인간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에 초점을 맞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독창적이고도 아름다운 사진에 감동했다"며 더불어 "이것이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할 서막임을 감지했다"고 그날을 술회한다. 이후 중고 '코니카' 카메라를 구입, 동경의 뒷골목과 사회적 약자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1957년의 일이다.

2년 과정의 디자인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방직회사에 다니며 토요일엔 카메라를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집을 나섰다. 1년 동안 '한국자선회' (소년의 진 전신)의 전속사진사로 일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맡겨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한국자선회는 전쟁고아들의 구호와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한국자선회의 '소 알로시에신부'는 미국인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사진을 편지와 동봉, 미국에 보냈다. 그 기부금으로 회(會)의 운영비를 조달했다.

1962년, 한국자선회에서 찍은 사진 2점이 대만국제사진전에서 처음 입선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사진전에서 입선과 입상을 거듭하여 국제적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67년 '부산문화상' 수상, 영국 '사진연감'에 그의 사진 6점이 수록됨과 동시에 '스타 사진가'로 선정, '카메라의 램브란트'라는 격찬을 받았다. 독일 '국제사진연감', 일본 '세계사진연감'에 그의 사진이 수록되면서부터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초청전이 줄을 이었다.

그의 피사체는 언제나 사람이다. 그것도 가난한 민초들이 대부분이다. "나의 가난이 사진

을 찍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작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사진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부터 군사독재로부터 감시와 탄압이 시작되었다. 조국의 발전상을 국외에 알리지 않고 가난한 모습만을 사진에 담은 그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해 정부에서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초청사진전에 정작 작가 자신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의 사진에 얽힌 일화는 많다. 서울역전, 국제시장, 강원도, 자갈치시장 등에서 큰 카메라를 들고 초라한 행색으로 서터를 놀려대는 그를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간첩으로 오인,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 신세를 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1968년, 그의 첫 개인 사진집 'HUMAN' (인간)이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되었다. 3집 이후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그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한 성 베네딕도수녀원(경북 예천)의 '임 세바스티안부'의 후원으로 'HUMAN' 8집까지 무사히 출간할 수 있었다.

작가는 "사진은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라고 전제하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진은 사회적이며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의 '사진 반세기'는 흑백과 인물, 곧 꾸밈없는 리얼리즘과 인간존중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단한 이웃의 삶을 감싸안고 인간내면과 시대의 무늬까지 아로새기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1985년부터 인도, 네덜, 동남아 등 해외로 출사(出驛)를 다니기도 했다. 경성대, 동아대, 인제대 등에 출강, 후진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91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원로보조금도 받는다. 부산방송 '문화대상' 수상, 대한민국 '육관문화훈장' 등 각종 문화상을 수상했다. 2004년엔 부산시립미술관에 그의 사진 50점이 영구 보존되었다. 지금까지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저작물은 사진집 'HUMAN' 13집과 'WOMAN', 사진산문집 '종이거울속의 슬픈 얼굴', 사진이론서 '사진이란 무엇인가' 등 총 29권.

작가는 내년 쯤 미발표작과 최근작을 모아 'HUMAN' 14집과 수필집 출간을 준비 중이며 그의 작품은 남구신문을 통하여 매달 한면씩 만나볼 수 있다.

이두래 명예기자

■ 반 / 갑 / 습 / 니 / 다

“행복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전 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초대원장

“지역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개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상수 전 구청장이 지난 8일 오후 열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개원식에서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전상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 여성계와 시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산지역 여성과 가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또 “개발원은 앞으로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인재 육성과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을 보급할 계획이며 여성단체가 요청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수 원장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초대원장으로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충고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직원들과 더불어 개발원의 튼튼한 초석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김옥련 명예기자

■ 사람과 사람

지방의제21 공로자 포상



윤현수 아름다운 남구21 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은 지난 12일 끝난 제10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부산을 대표해 공로자 포상을 받았다.

윤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부산시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와 공동회장직을 맡으면서 그동안 자연생태계, 그린스쿨과 이기대 반딧불이 관찰행사, 청소년 환경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특히 저러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프로그램을 개설해 호응을 얻었다.

이외환경계 수상도시실 현장견학과 2008 아름다운 남구기리기 환경상 시상, 생태도시 남구를 위한 그린웨이 네트워크 구축 등 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윤현수 회장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신념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실을 많이 열어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환경기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리구 사람들

관청의 지원 이끌어 내겠다

남구 중소기업협의회
배비룡 신임 회장



“남구지역 중소기업체의 권익 증진과 화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배비룡 영남제분주식회사 부사장은 지난 9일 열린 남구 중소기업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업체와 지원기관 대표자 간담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배 회장은 “어려운 국가경제 속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운 게 사실이지만 116개 지역 중소기업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협의회가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회원업체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배 회장은 “8~9월 중 창립총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열어 현안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느 때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업체를 위해 자금과 판로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편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도 협의회에서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와 구, 부경대산학협력관, 수영세무서 등의 행정관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이들 관청으로부터 회원업체가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배 회장은 “협의회가 일회성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원업체의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모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나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봉사를

남구 라이온스 클럽
정삼극 회장



“올 한해를 이웃을 돌보는 봉사의 원년으로 삼고 전 회원들의 충지를 모아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이웃사랑에 나서겠습니다”

정삼극 동아중국관 대표 (대연 3동·54)가 지난 1일 호메르스 호텔에서 열린 부산 남구 라이온스 클럽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회장은 취임사에서 “봉사의 실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 올 한해를 클럽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남구음식업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드러나는 큰 봉사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봉사를 실천하고 있기로 소문나 있다.

그는 “하나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봉사를”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올 한해동안 클럽 회원확충에 박차를 가해 보다 발전되고 향상

된 봉사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회장은 또 “올해는 부산남구라이온스 클럽이 창립 제 3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뜻 깊은 봉사로 이웃을 찾아보겠다”는 작은 포부도 밝혔다.

품에 배인 듯한 겸손함으로 생활하고 있는 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회장은 지역사회의 봉사에 남다른 열정을 쏟으며 환한 웃음을 선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상영 명예기자

오륙도여성합창단 후원회장 취임

박재본

전 라이온스 남구지역 부총재



박재본 전 라이온스 남구지역 부총재(대연5동)가 지난 14일 오륙도여성합창단 후원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남구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오륙도여성합창단을 적극도와 문화도시 남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후원회원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을 펼쳐 기금을 마련해 합창단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합창단 임원진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다 성숙되고 알찬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삽&열정 -팝 전문 PD 도병찬 씨

“비틀스는 내 삶이다”



도병찬 PD가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메신저가 되겠다는 소망을 밝히고 있다.

30년 경력의 팝 전문 PD 도병찬(60) 씨를 만났다. 그는 현재 매일 오후 4시 부산 KBS 라디오 ‘도병찬의 뮤직파일(FM 92.7MHz)’을 진행하고 있다. 20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윌드팝과 히피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팝 프로그램이다.

그의 방송 특징은 대본 없이 생방송 중 느낌과 흐름만으로 즉석 가변 멘트를 하는 것이다. 70·80년대 학교 앞 음악다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선곡에 중장년 청취자들은 추억의 시절로 돌아가 음악의 감동을 풀게 된다.

도병찬 씨는 방송에 입문하기 전 대학 재학 시절부터 교향 대구의 음악 감상실에서 DJ를 했다고 한다. 그 후 1972년 대구 팝송문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한국 FM방송(BBC)에 DJ와 스크리너로 특별 입사했다.

이어 76년 PD로 발령받은 뒤 언론사 통폐합으로 81년 10월 KBS 부산방송총국으로 옮겨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해 왔다. 평생 음악과 함께한 그는 지난 연말 정년퇴임을 하였으나 프리랜서로 진행은 계속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 가서 닐 세다카의 ‘오 캐롤’

을 부를 만큼 팝송과의 인연은 오래되었다. “음악과 가깝게 편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DJ다”라는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묻자 “비틀스가 내 삶이다. 비틀스의 고향인 음악의 도시 리버풀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음악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그가 얼마 전 소장 음반들을 모아 LP 카페의 문을 열었다. 대연동 경성·부경대역 1번 출구 샌쥬빌빌 뒤편에 자리한 ‘카페 라디오’가 그곳. ‘카페 라디오’를 들어서면 대형 아날로그 믹싱콘솔과 Pink Floyd 포스터가 눈에 띈다. 파티션 역할을 하는 소풍을 하나하나도 이제롭다.

카페 벽면마다 가득한 LP들은 20년 전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이곳에 있는 LP와 CD는 그의 보물들인데, 그동안 모은 LP 음반이 5천여 장, CD는 8천여 장쯤 된다고 했다. 비틀스와 닐 영부터 윌리엄 와일러의 밴드 OST나 제임스 본드 오리지널 테마까지 다양한 LP들을 볼 수 있다.

요즘과 달리 손으로 제작해야 했던 당시 LP 재킷들은 지금보다 기술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몰라도 디자인이 나 아이디어는 훨씬 감각적이다.

‘카페 라디오’에는 직업과 상관없이 음악과 영화와 미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다. 재미있는 점은 1980년대에 그가 소개한 음악을 들던 마니아들이 다시 찾는다는 것. 그들은 작가, 교수, 의사 등 중년 사회인이 되어 이곳의 흥보이사와 보조 DJ를 지켰었다.

또한 ‘카페 라디오’에서는 다양한 콘서트와 미술전 등을 소개하며 베이스캠프프로 문화인들의 놀이터 역할도 한다.

이곳에서 유로팝이 흘러나올 때 음반 재킷을 펼쳐놓고 함께 감상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도병찬 PD는 이 귀한 음악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소망한다.

음악을 공부해보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그는 오늘도 ‘돌아온 라디오 파일들’을 기다리며 30cm LP 음반을 돌린다.

김정화 명예기자

■ 화제의 인물

전쟁 없는 세상 만들어야



에드워드 한센씨가 부인과 함께 전우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휴전 55주년 맞아 유엔공원 찾은

캐나다 참전용사 에드워드 한센씨

한국전 당시 참전했던 에드워드 한센(79 캐나다)씨가 지난 14일 오전 동료와 유가족들과 함께 유엔기념 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중사 출신의 에드워드씨는 지난 1951년 한국전에 참전해 대전에서부터 휴전선 이북을 넘나드는 전장을 누볐다. 전쟁 당시 작전 중 동료 1명이 죽고 24명이 부상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일어나선 안된다”며 당시를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다.

에드워드씨는 이번 한국 방문이 한국전 참전 이후 두 번째로 부인 린다 한센씨와 함께 전우의 주검이 안치된 유엔공

원을 찾았다.

노부부는 전장에서 초개같이 산화한 동료 6명의 묘역을 일일이 찾아 손수 만든 나무 십자가를 놓고 명복을 빌며 눈시울을 적셨다.

“버나민 이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기쁩니다. 다시는 한국전과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1983년 이후 25년 만에 남구를 찾은 에드워드씨는 “몰라보게 발전한 도시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전우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보여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부인의 손을 잡고 유엔공원을 떠났다.

김옥련 명예기자